

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 베드로후서

1. 베드로후서 1:1-15

1) 관찰질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침입한 '세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2) 해석질문: 교회와 성도들 안으로 들어온 '거짓교사들'에 대한 해법으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은, '앎(knowing)'과 '됨(being)'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1:2-3, 8; 2:20; 3:18),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1:4, 5-8; 3:11-13, 18)는 것일까요?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1:2, 3, 8)를 강조합니다. 요한도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이라고 말하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엡1:17-18)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나요?

3.2(만나주심):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1:4)이 되어야 함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경건의 훈련과 노력을 하고 있나요?

3.3(다듬으심):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언급한 후에 여덟 가지 신앙의 덕목(1:5-8)을 열거하면서,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being)를 설명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보면, '하나님을 앎(믿음)'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성품의 변화를 통해 '사랑'으로 완성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가요?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요?

3.4(들어쓰심): 베드로는 여덟 가지 신앙의 덕목을 강조하면서, 그런 성품들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열성을 다하여, 더하고, 더하도록 하십시오,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1:5-8)등의 표현들은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결단해보세요.

4.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성도에게 요청하는 신앙 덕목 중 하나인 “인내”(1:3, 6, 13; 4:12-13)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에 근거하여, 시험이나 고난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견디어 내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인내를 실천하여 문제를 이겨낸 경험, 언제인가요? 인내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2. 베드로후서 1:16 - 2:22

1) 관찰질문: 교회의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온 “거짓교사들”(2:1)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6, 20)

2) 해석질문: 거짓교사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1:20)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잘못된 성경해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받은”(1:21)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1:19)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신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3.2(만나주심):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주의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1:19-20). “날이 새고 샨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집중력’이 필요함을 알려 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고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3.3(다듬으심):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1:16), 성경의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1:20-21), 탐욕에 빠져 그럴 듯한 말로(2:3)”라는 표현들은 거짓교사들이 생겨난 결정적인 원인이 잘못된 성경해석에서 출발하는 교리적인 오해임을 짚어줍니다. 결국 그들은 윤리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다가(2:1-3),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2:4-10).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이런 길을 따라가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4(들어쓰심): 거짓교사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2:12) 그들은 “방종한 정욕으로 유

혹”(2:18)하는데, 그들에게 넘어가면 “타락한 종”(2:19)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거짓교사들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피할 방법으로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20-21) 이를 위해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4. 삶의 현장에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지기 전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Pro-Slavery)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Anti-Slavery)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신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제멋대로의 해석’은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졌고, 이는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가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베드로후서 3:1-18

1) 관찰질문: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3:4)

2) 해석질문: 교회에 침입한 거짓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의심하고 조롱하면서(3:4-6)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는 “자기들이 욕망대로 살면서”(3:3)에 담아 설명하는데, 이는 앞선 2장(2:13-1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부정하고 잊으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적용질문:

3.1(먼저오심):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마지막 재림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천지 창조, 홍수 심판, 하늘과 땅의 보존’ 등(3:5-7)을 짚어주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임을 확인해줍니다.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보세요.

3.2(만나주심): 재림과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조롱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3:8),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3:9),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3:15)’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3.3(다듬으심): 재림과 심판을 말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3:10)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마 25:1-46)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둑같이(3:10), 한 밤중에(마25:6), 오랜 뒤에(마25:19), 인자가 올 때에(마 25:31)’ 등으로 표현된 그 날이 ‘언제’일 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나요?

3.4(들어쓰심):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기다림’을 권면 하면서(3:12-14),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성도로서 힘써야 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예들을 ‘가정, 교회, 직장’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정리해보세요.

4.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형원)라는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사’로 바꾸어 적어 보세요.